마쓰오 신사

15 세기에 건축된 이 건물은 마쓰오 신사의 본전으로, 인근의 이누부시 마을과 깊은 인연이 있는 오래된 신사입니다. 1978 년에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, 2017 년부터 2019 년에 걸쳐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.

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신사는 807 년에 창건되어, 모시풀(카람시, 도카마치 전통 직물에 사용되는 주요 식물)과 관련된 여신 누나카와히메를 모셨다고 전해집니다. 현재의 건물은 1497 년에 지어진 것으로, 니가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초가지붕 목조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

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지붕의 경사가 심하고 지주가 여러 개 있다는 점입니다. 이 2 가지 구조 덕분에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겨울의 폭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이러한 오랜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500 년 동안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 신사를 수리하고 관리해 온 덕분이기도 합니다.

이 신사는 매년 5 월 8 일에 열리는 성장 기원 행사 '나나쓰마이리'의 주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세는 나이로 7 살이 된 마쓰오 지역의 소년들이 이 신사를 참배합니다. 험한 산길을 오르는 소년들을 지역 주민들이 총출동해 돕습니다. 기도와 의식이 끝나면 모두 산을 내려오고, 소년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축하하는 잔치를 엽니다.

이 신사에는 검과 군바이(전투 때 장수가 지휘하기 위해 사용한 부채)라는 2 가지 중요한 유물이 전해 내려옵니다. 군바이는 16 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강력한 다이묘 우에스기 겐신(1530~1578)이 신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유물들은 신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, 복제품이 '마쓰다이 향토자료관'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